

경마 고객들과 소통 강화 공정·투명한 경마 알린다

한국마사회는 경마 팬들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경마를 알리는 '찾아가는 심판위원'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심판위원' 설명회는 경마의 경주 진행 방식과 공정성 유지에 관한 노력, 관계자 교육 및 제재를 받고 있는 심판위원의 고유 업무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다.

특히 경마 고객들이 심판 판정에 대한 이해도와 신뢰를 높이기 위해 경마의 순위변경을 결정하는 과정과 특이 경주 등 심의와 관련된 시청각 자료를 설명회에서 공개한다. 주요 경마 시행국에서는 순위 변경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소개하고 국내 기준과 비교한다. 문제가 발생했던 경주영상을 경마 고객과 함께 보면서 해당 상황을 심판들이 판정에 경주 결과에 반영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한국마사회는 10일 천안지사서에서 올해 처음으로 '찾아가는 심판위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경마전투가 시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마전문직인 심판들이 지방 사업장을 방문해 고객과의 소통 접점을 늘려 공정하고 투명한 경마를 알리는데 노력했다.

천안지사 설명회에서는 다른 말을 방해해 최종 순위가 변경되거나 실격이 되는 등 이슈가 됐던 경주 영상을 다각도로 분석하면서 판정을 내리게 된



10일 한국마사회 천안지사서에서 열린 '찾아가는 심판위원' 설명회.

사진제공 | 한국마사회

■ 경주진행 방식·심판 판정 등 시청각 자료 활용 정보 공개

■ 천안지사서 첫 설명회 상황 하반기 중 추가 설명회 추진

근거를 설명해 고객들의 경주 이해도를 높였다. 판정에 대한 고객과의 질의와 답변도 진행했다.

설명회를 주관한 한국마사회 심판처는 참여한 경마 고객들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경마 제도에 대한 자문을 진행했

다. 천안 설명회에서는 경주 중 재찍 사용 기준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발표를 맡은 이영우 심판위원은 "설명회에서 전달받은 고객의 의견을 반영해 보다 공정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경마 제도와 기준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찾아가는 심판위원' 설명회에서는 앞으로 전·후 경량, 기수들의 준수 의무 등 심의에 관한 주요 경마관련 규정도 소개할 계획이다.

문운영 한국마사회 경마운영본부장은 "그동안 운영했던 국민참여 심판위원 자문단에서 더 나아가 경마 전문가가 직접 현장에 찾아가 일선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심판 업무를 알리고 적극 소통하기 위해 설명회를 기획했다"며 "앞으로 경마 시행의 핵심인 심판업무의 공정성을 알리고 경마 고객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청취해 제도 개선과 집행에 반영함으로써 신뢰받는 한국 경마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사회는 하반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찾아가는 심판위원' 설명회의 추가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설명회 시행을 계기로 앞으로 심판 업무와 공정한 심의절차를 외부에 적극 알리고, 순위 변경제도에 대한 해설과 동영상 시청 등을 통해 고객들이 경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한국마사회, 부패취약분야 청렴 교육 실시



한국마사회는 11일 과천 본사 대강당에서 부패취약분야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사진)했다. 반부패

·청렴 관련 문제발생 리스크가 크고, 높은 윤리 의식이 요구되는 부서 실무자들에게 청렴 관련 지식을 전달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교육 우수 강사로 선정된 김주원 강사가 교육을 맡아 실무에 적용 가능한 윤리청렴 법령 소개, 타 기관 우수 사례 공유, 부패 리스크 예방을 위한 업무 매뉴얼 만들기 등 실용적 내용으로 진행했다.

추석 맞아 소외계층에 농축산물 전달



한국마사회가 추석을 앞두고 16일 '2021년 추석맞이 코로나19 취약계층 및 전통시장 지원사업'(사진)을 시행했다. 이재욱 마

사회 상임감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과천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농축산물 포장 및 배달 봉사를 실시했다. 독거노인 가구나 한부모 가정 등에 임직원들이 배달해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총괄한 이재욱 한국마사회 상임감사위원 "코로나19로 모두가 힘겨운 시기를 보내는 요즘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2021년 하반기 전국 말 방역사업 시행



한국마사회는 국내 말산업 보호·육성을 위한 하반기 전국 말 방역사업(사진)을 실시한다. 연령 6개월

이상의 국내 등록마 1만9500여 두를 대상으로 말인플루엔자와 선역에 대한 백신을 선착순으로 접종한다. 희망 농가는 호스피아 공고문을 참고해 30일까지 인근 수의사에게 신청하면 된다. 미등록마는 현장에서 등록 후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은 10월 중순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마사회는 전염병 모니터링을 위해 주요 말전염병인 말전염성자궁염 시료채취도 함께 시행한다. 예방 백신 접종 및 전염병 모니터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내년은 한국경마 100주년... "경마 역사자료를 보내주세요"

70년대 이전 경마 자료 중점 수집 열화당 이기웅 대표, 유물 2점 기증 내년 5월 '100주년 특별전'서 공개

한국마사회가 2022년 한국경마 시행 100주년을 맞이해 경마 역사자료 수집에 나섰다.

첫 사례로 3일 도서출판 열화당의 이기웅 대표가 소장하던 근대 경마 유물 2점을 마사회 말박물관에 기증했다. 이 유물은 함경남도 함흥경마구락부와 함경북도 용기경마구락부 춘계경마에서 1939년과 1940년에 수여된 우승기념 동기로 매병 크기의 작은 항아리에 꽃과 막이 각각 양각되어 있다. 시기, 경마장, 시상자 등도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

해방 후 신설동경마장을 찾은 백범 김구 선생, 미군정기 주한사령관이었던 하지 준장의 시상식 사진에서도 종이로 된 상장과 함께 이와 유사한 형태의 기물이 확인된다. 일본 양식인 화병 형태의 동기가 꽤 오랜 기간 동안 지금의 트로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22년 조선경마구락부의 설립을 기점으로 공인 경마 100주년을 앞둔 한국 경마는 해방 전 경성과 평양, 군산, 대구, 부산,



열화당 이기웅 대표(왼쪽 사진 왼쪽)의 근대 경마유물 기증식과 해방 직후 경마장을 찾아 시상 중인 백범 김구 선생(오른쪽 사진 오른쪽).

사진제공 | 한국마사회

신의를, 청진 응기, 함흥 등 9개의 공인 경마장에서 불과 가을, 전국 순회 경마를 시행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말에는 2차 세계대전의 심화로 대부분의 경마장이 기능을 잃었으며 해방 후 전국전용으로 폐허가 되다시피 했다.

신설동 경마장을 끝으로 꺼져가던 한국 경마의 명맥은 1954년 목석 경마장의 개장으로 다시 이어졌으며 1989년 과천 서울경마공원으로 이전하면서 경주영상을 해외에 수출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100년이라는 긴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경마의 역사는 아쉽게도 반쪽짜리다. 한국경마 초기인 해방

전부터 과천으로 이전하기 전 자료는 대부분 유실되었기 때문이다. 전쟁의 포화와 잦은 수해로 과거 종이 기록물이 대부분이었던 1920~1970년대 자료는 불타거나 물에 휩쓸려가 마필과 경주기록 등도 단편적인 기사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수집 대상은 희박한 1970년대 이전 경마사 자료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마권과 각종 홍보물을 비롯해 과거 경마장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의 물품과 기록물, 마필 관계자료, 상장과 트로피, 사진 등이 포함된다. 이렇게 수집, 선정된 자료는 2022년 5월 한국경마 100주년 기념 특별전을 통해 대중에게 소개될 예정이다.

말박물관 관계자는 "당장은 기증이나 전시 기간 중 기탁, 임대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지만 추후 경영여건이 정상화되면 전시품 중 근대 문화재 지정 가능성이 있는 자료의 경우, 구매도 고려 중이니 많은 분들의 참여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경마사 자료 수집 참여 희망자는 이메일 (curator@kra.co.kr)로 해당 자료의 사진과 간략한 설명, 연락처 등을 송부하면 보유 여부 등을 파악 후 담당자가 연락해 인수 방법 등을 안내한다. 수집 기간은 10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선(02-509-127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수진 기자 sujini22@donga.com

골프

박민지 부상... '박세리 인비테이셔널' 출전 전격 취소

2021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를 지배하고 있는 '대세' 박민지(23)가 대회 개막을 하루 앞두고 부상을 당해 출전을 전격 취소했다.

17일부터 사흘간 충북 청주시 세종 실크리버 컨트리클럽&갤러리(파72)에서 열리는 'O.K저축은행 박세리 인비테이셔널'(총상금 8억 원·우승상금 1억4400만 원)에 출전할 예정이던 박민지는 16일 오전 공식 연습을 하다가 허리 쪽에 부상을 입었다. 대회 관계자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대회 개막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권이 아닌 출전 취소가 된다"고 설명했다.

올 시즌 6승을 거두며 압도적 기량을 과시하고 있는 박민지는 지난해 끝난 'KB금융 스



박민지

타 챔피언십'에서 공동 4위에 올라 상금 5400만 원을 추가하며 누적 상금 13억3330만 원으로 2016년 박성현(28·13억3309만 원)을 넘어 KLPGA 투어 한 시즌 최다 상금 신기록이라는 새 역사를 썼다.

시즌 2번째 대회였던 4월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에서 올 첫 승에 성공한 뒤 7월 대보하우스디에서 시즌 6승에 성공했던 박민지는 최근 7개 대회에서 정상을 밟지 못하는 등 우승 페이스가 주춤한 게 사실이지만 여전히 투어 최강자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

현재까지 열린 올 시즌 20개 대회 중 18개 대회에 출전해 우승 6회, 톱10 11회를 기록했다. 첫 탈락은 3번 밖에 되지 않았다.

박민지는 이같은 활약을 바탕으로 독보적 상금 1위를 달리면서 대상 포인트에서도 556점으로 1위에 올라있다. 평균타수 부문에서는 69.982타로 올 시즌 2승을 거둔 장하나(29·69.7115타)에 조금 뒤져있지만 한 두 대회 성적에 따라 뒤집을 수 있는 간격이라 연말에 다승을 비롯해 상금, 대상, 평균타수 등 다관왕 등극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입장이 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XGOLF, 'U+골프'와 전략적 업무 제휴 골프장 할인 등 온·오프 프로모션 전개

국내 최대 골프 부킹서비스 XGOLF(대표 조성준)가 LG유플러스의 골프 전문 서비스 플랫폼 'U+골프'와 전략적 업무 제휴(사진)를 체결했다. XGOLF는 16일 "이번 제휴를 통해 양사는 국내 아마추어 골퍼들을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모션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골프 인기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내 골퍼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프로모션은 골프장 할인 예약부터 스윙 및 클럽 분석서비스, 실외 골프연습장 할인까지 다양한 이벤트로 구성돼 있다.

U+골프 내 실시간 골프장 예약서비스 론칭 기념 이벤트로 11월까지 선결제 골프장



예약 고객에게 1만 원을 즉시 할인한다. 그리고 피팅 전문업체 TGF와 함께 6만 원 상당의 스윙 및 클럽 분석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또 U+골프 앱 설치 고객은 XGOLF에서 운영 중인 'XGOLF연습장 장한평점'과 '쇼골프타운/XGOLF연습장 김포공화점'에서 타석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연습장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통해 타석 예약 후 앱 내 QR코드를 인식하면 1000원 할인 받은 금액으로 타석 이용이 가능하다.

김도현 기자